

 <b>보건복지부</b>	<b>보 도 참 고 자 료</b>			
배 포 일	2020. 5. 10. / (총 10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홍 승 령 김 영 은	전 화	044-202-3575 044-202-3805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 당 자	노 혜 원 이 승 훈	전 화	044-200-2293 044-200-2295
중앙방역대책본부 백신연구과	과 장 담 당 자	정 경 태 유 정 식	전 화	043-719-8150 043-719-8151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과 장 담 당 자	구 영 실 이 규 성	전 화	044-203-6249 044-200-6252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	과 장 담 당 자	김 석 이 인 숙	전 화	044-203-6899 044-203-640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과 장 담 당 자	박 상 욱 윤 철 민	전화	02-2110-4090 02-2110-409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항체가(면역도) 조사 계획, ▲대학 방역 관리 현황 및 계획, ▲해외 입국자 현황 및 추이 분석, ▲이태원클럽 집단감염 관련 방역 조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항체가(면역도) 조사 계획, ▲대학 방역 관리현황 및 계획, ▲해외 입국자 현황 및 추이 분석,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엄중한 상황에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잘 나서 주고 있다며, 대도시인 부산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행정명령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이태원 클럽 관련 방문자가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권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이 검사를 회피하는 등 방역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서는 불이익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1 코로나19 항체가(면역도) 조사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항체가(면역도) 조사 계획을 보고받았다.
  - \* 항체가(면역도): 병원체에 감염되었을 때 체내에서 생성되는 항체의 양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시점 일반 국민의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을 확인하여 집단 내 면역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 일반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잔여 혈청과 코로나19 집단발생 지역인 대구·경북지역 주민 혈청을 이용하여 항체가(면역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매년 192개 지역별로 각각 25가구를 확률표본으로 추출해 만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과 영양상태 조사
  - 항체가 조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10세 이상 7,000여 건, 대구·경북지역은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1,000여 건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에 필요한 항체 검사법이 결정되는 대로, 빠르면 5월 말부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항체가 조사가 진행되면 일정 시점에서 집단면역 정도, 무증상 감염 규모 파악을 통해 방역 대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다만 항체를 보유한 것은 과거에 감염된 이력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질병 방어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 해석 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 2 대학 방역 관리 현황 및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이후 대학이 제한적으로 대면 수업을 실시함에 따라 대학의 방역 관리현황을 점검하였다.
- 그간 정부는 대학에 비대면 수업을 지속 권고하였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 이후 제한적 대면 수업 실시에 대비하여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배포(4.23)하였다.
- 또한 지침 배포 이전인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교육부 본부 직원 및 지역 국립대 직원을 2인 1조로 총 30개조의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296개 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 점검대상 대학의 코로나19 방역 관리 체계 및 보건소, 지방자치단체와의 핫라인 구축 등 비상시 대응 체계를 확인하였다.
- ※ (1차) 10개반 113개교 점검, (2차) 9개반 79개교(77개교 및 1차 점검 결과 미흡 2개교) 점검, (3차) 3개반 74개교 점검, (4차) 8개반 30개교 점검

- 아울러 대학 및 전문대학 교무처장 협의회 회장교 등 48개 대학\*의 방역 관리 현황을 조사(5.8)하여, 사전 발열 검사, 강의실 좌석 간격 조정, 방역 소독 실시 등 조사 대학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 (4년제 대학) 고려대, 부경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17개교,  
(전문대학) 부천대, 수성대, 영남이공대, 인덕대, 인하공업전문대 등 31개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학이 실험·실습과목 등을 제한적으로 대면 수업으로 운영함에 따라 대학가에 지역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5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권역별 대학 방역 관리현황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 대상은 대학 60개교, 전문대학 40개교이며, 대면 수업 실시 시기 및 규모, 대학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 특히 이번 점검은 점검대상 대학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사전 발열 검사 실시 여부, 기숙사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3 해외 입국자 현황 및 추이 분석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1주일간 국적별 내외국인 입국자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 국민 입국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7일 사이에 일평균 2,611명이 입국하였으며, 4월 13일에서 4월 30일까지 일평균 입국자 2,664명과 비교해 약 2% 감소하여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외국인 입국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7일 사이에 일평균 772명이 입국하여, 4월 13일부터 4월 30일 일평균 입국자 767명 대비 1% 증가해 유사한 수준이었다.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는 원양어선 등의 선원 교대 목적 입국자 증가로 그 전주(4.13~4.30) 112명에 비해서 일평균 131명으로 17% 증가하였으나, 무사증입국 정지조치 시행(4.13) 이전(4.1~4.12.) 일평균 266명과 대비해서는 절반 수준을 유지하였다.
- 앞으로 국내 코로나19 상황의 호전과 항공편 증편 등으로 인해 해외로 출국했던 재외동포 거소등록자 등 등록외국인의 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도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4 용인시 확진 환자 관련 방역 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용인시 확진 환자 관련 방역 조치를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8일 20시부터 6월 7일까지 1달 동안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하였다.
- 행정명령 시행 이후 지자체별로 주말 유흥시설에 대해 중앙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자체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접촉자·방문자에 대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추진 중이다.
- 전 국민 긴급재난문자로 4월 29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클럽을 방문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경우, 선별진료를 받도록 안내하였으며, 이태원 지역 방문자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선별검사가 가능하도록 조치(5.9)하였다.

- 전국 보건소는 주말 비상 선별검사체계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며, 특히 용산구는 보건소 선별검사체계를 24시간 운영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하여 밀폐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접촉하는 것을 조심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업소 등에서도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 붙임 > 1. 해외 입국자 현황  
2. 감염병 보도준칙  
3.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법  
9.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붙임1

## 해외 입국자 현황

### □ 국민 연령별 입국 현황

구 분	합 계	10세 미만	20세 미만	30세 미만	40세 미만	50세 미만	60세 미만	60세 이상
4.1.~4.12.	43,337	2,554	4,401	17,263	7,136	4,941	3,408	3,634
일평균	3,611	213	367	1,439	595	412	284	303
4.13.~4.30.	47,943	2,636	3,800	14,571	9,601	7,385	5,265	4,505
일평균	2,664	146	211	820	533	410	293	250
5.1.~5.7.	18,279	1,011	1,405	5,137	3,834	2,964	2,185	1,743
일평균	2,611	144	201	734	548	423	312	249

### □ 외국인 체류자격별 입국자

구분	합 계	단기(90일 이하)		유학	전문직	단순 노무	동반 거주	재외 동포	영주	결혼	방문 취업	기타
		무사증*	사증									
4.1.~ 4.12.	15,984	2,236	964	4,646	196	938	1,338	958	194	835	353	3,326
일평균	1,332	186	80	387	16	78	112	80	16	70	29	277
		266										
4.13.~4.30.	13,807	1,844	184	2,504	377	1,198	2,055	1,095	258	1,187	786	2,319
일평균	767	102	10	139	21	66	114	61	14	66	44	129
		112										
5.1.~5.7.	4,764	804 (431)**	113	622	126	432	830	484	127	472	288	466
일평균	772	115 (61)	16	104	21	72	138	81	21	79	48	77
		131										

\* 무사증 입국 제한 대상이 아닌 항공기 승무원은 통계에서 제외

\*\* 괄호안은 선원교대자로, 4~6월 원양어선 등의 선원교대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집중됨

## 붙임2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술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뎀 대재앙”

##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첨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 붙임3

##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